



# 은행 (Neutral)

## 8월 연체율: 가계-기업 간의 방향성 차이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 RA 서주원 juwon.seo@hanwha.com 3772-7481

국내은행의 8월 말 연체율은 0.24%로 4bp YoY 하락했고, 연체 규모는 41개월째 감소 중입니다. 단, 법인 기업의 연체 규모가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가계 연체잔액은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건전성에 있어서 가계와 기업의 방향성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 국내은행 8월 말 연체율 0.24% (-4bp YoY)로 하락

- 국내은행의 8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24%로 4bp YoY 하락. 업종 전체의 연체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중. 다만 가계 차주의 연체율은 상승 추세로 전환됨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SOHO) 연체율은 각각 0.38% (-13bp YoY), 0.20% (-2bp YoY)로 4Q19부터 하락 추세를 지속. 단, 자영업자 연체율은 하락 속도가 둔화됨. 변동성이 큰 대기업 연체율은 0.13%로 17bp YoY 하락함
- 가계 연체율은 7월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8월에도 +2bp YoY를 기록. 신용 등 일반대출은 0.42% (+6bp YoY)로 5개월 연속 YoY 상승했으며 추세가 가속화됐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12%로 31개월 만에 YoY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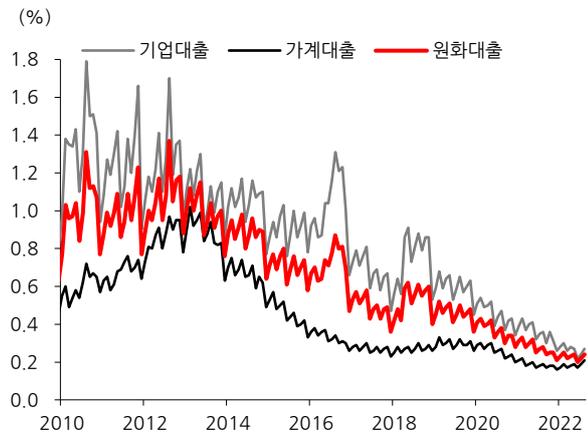
### 연체잔액 41개월째 감소

- 은행업종 연체채권 규모는 8월 말 5조원 (-9% YoY)으로 4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줄어들고 있으나, 역시 차주별 온도차가 나타남 (그림 7)
- 기업 (추정): 8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17% YoY로,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체 규모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 (그림10)
- 가계 (추정): 8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2% YoY 증가하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늘어남. 종별로는 신용 등 일반대출에서 11% YoY, 주택대출에서 13% YoY 증가함 (그림10)
- 8월 중 발생한 신규연체 규모는 1.1조원으로 여전히 1조원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 (그림8)

### 가계와 기업의 방향성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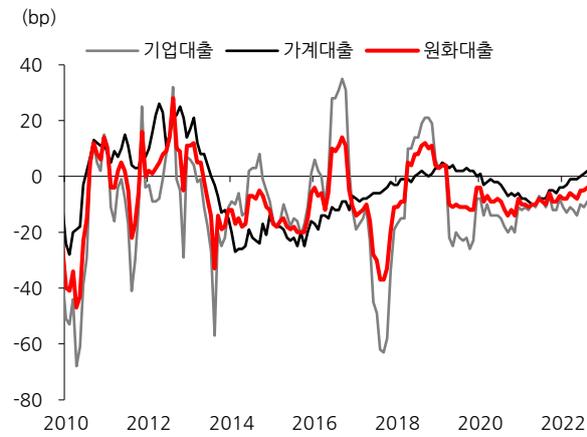
- 2022년 들어 가계 신용대출이 매월 감소하고 있음에도 연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신용대출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여유자금은 상환되는 반면 인터넷 은행의 중신용 대출 취급은 증가하는 등, 자산의 구성이 악화된 것이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판단
-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여전히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 연체 규모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가계 다음으로 연체율이 상승 전환하는 차주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 다만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COVID 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대상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이 재연장되면서 연체율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법인 기업의 연체 규모는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함
- 기업대출 연체는 여전히 감소하는 반면 가계대출 연체는 증가세로 전환된 후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출 증가율과 금리뿐 아니라 자산건전성에 있어서도 차주 간의 차이가 뚜렷해지는 것이 최근의 특징. 이러한 방향성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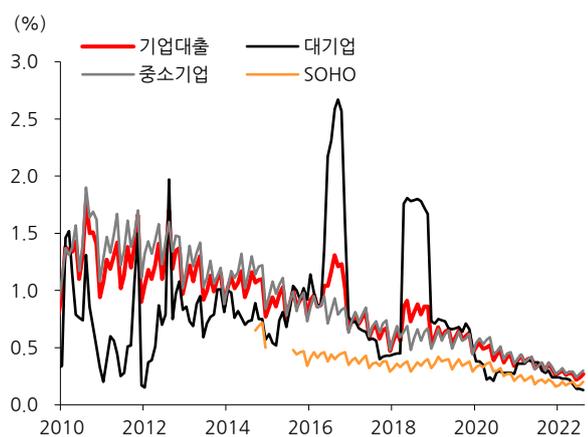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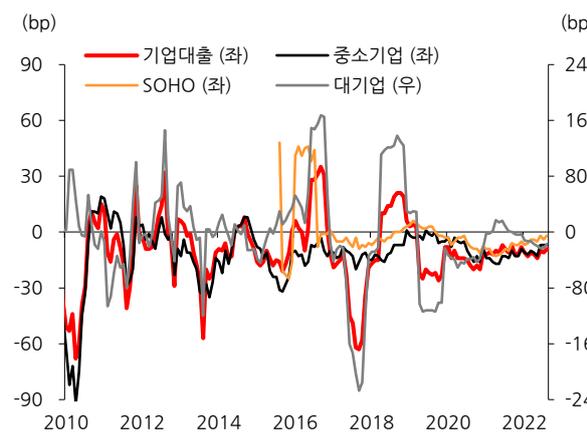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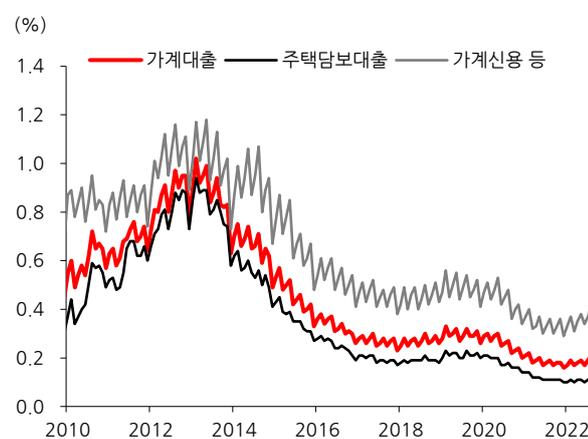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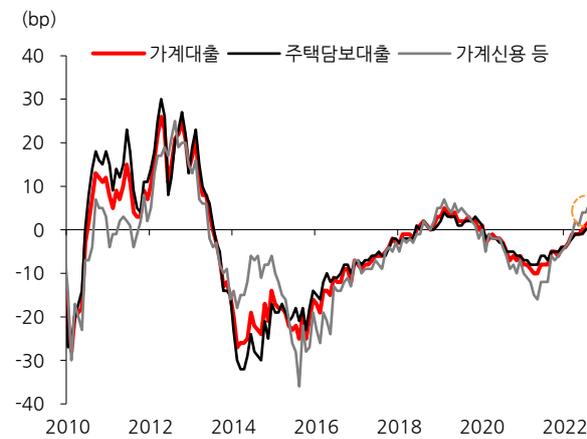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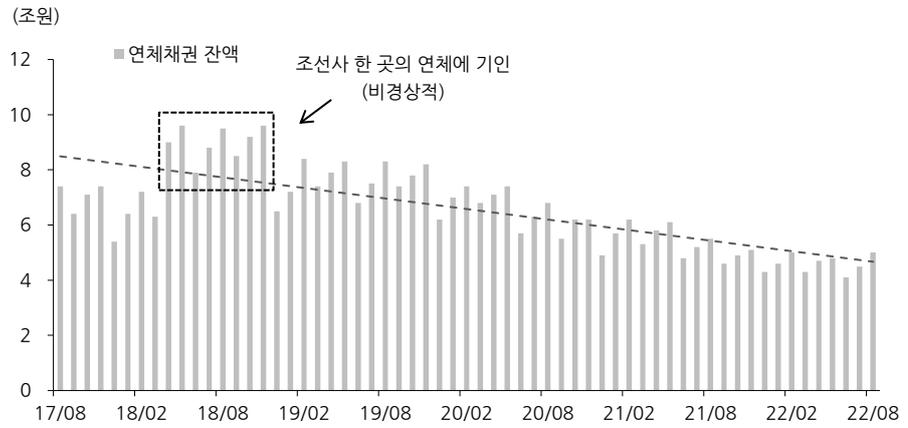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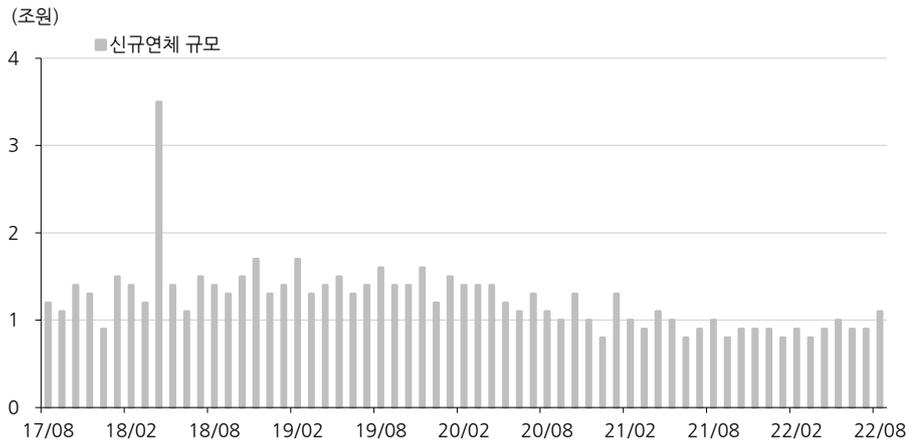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연체 잔액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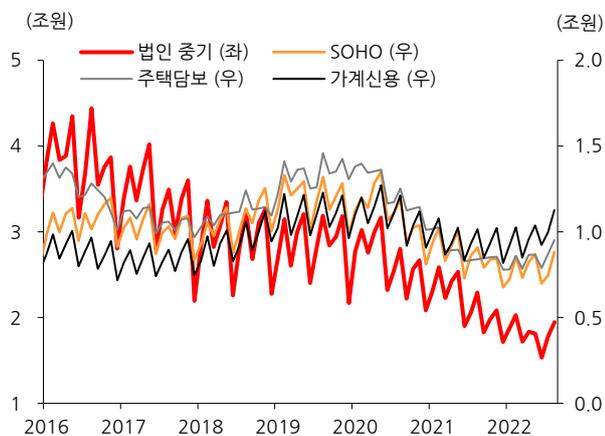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은행 월 중 신규연체 규모: 신규 연체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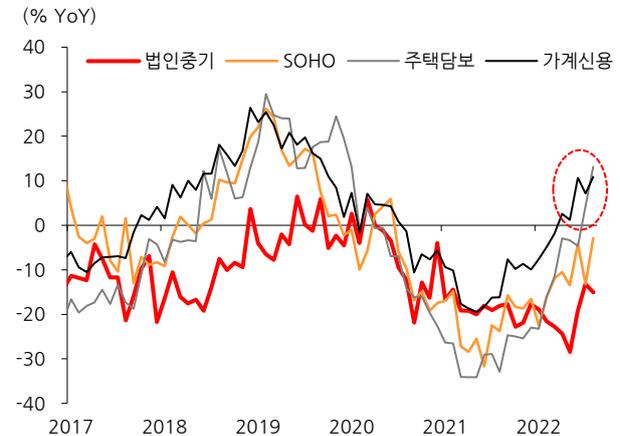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공표일: 2022년 10월 20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서주원)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 산업 투자의견 ]**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

(기준일: 2022년 9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4.5%	5.5%	0.0%	100.0%